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④

又問曰 云何輕重 分之爲六
우문왈 운하경중 분지위육
答曰 若有衆生 不了正因
답왈 약유중생 불료정인
迷心修善 未免三界 生三輕趣
미심수선 미면삼계 생삼경취
云何三輕 所謂迷修十善 妄求快樂
운하삼경 소위미수십선 망구쾌락
未免貪界 生於天趣 迷持五戒
미면탐계 생어천취 미지오계
妄起愛憎 未免瞋界 生於人趣
망기애증 미면진계 생어인취
迷執有爲 信邪求福 未免癡界
미집유위 신사구복 미면치계
生於修羅趣 云何三重
생어수라취 운하삼중
所謂縱三毒心 唯造惡業
소위종삼독심 유조악업
墮三重趣 若貪業重者
타삼중취 약탐업중자
墮餓鬼趣 嗔業重者 墮地獄趣
타아귀취 진업중자 타지옥취
癡業重者 墮畜生趣 如是三重
치업중자 타축생취 여시삼중
通前三輕 遂成六趣 故知惡業
통전삼경 수성육취 고지악업
由自心生 但能攝心 離諸邪惡

어리석음의 악업이 무거운 자는 축생에 떨어진다. 이 세 가지의 무거움과 앞의 세 가지 가벼움을 합쳐 여섯 갈래(六趣)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악업이란 오직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마음을 잘 다스려 그릇되고 악한 것을 버리면 삼계와 여섯 갈래의 길로 떠도는 고통은 절로 소멸하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이를 해탈이라 한다."

진여의 성품 삼독에 덮였으니
삼독만 제거하면 해탈이라

又問曰 如佛所說 我於阿僧祇劫
우문왈 여불소설 아어아승지겁
無量勤苦 方成佛道 云何今說
무량근고 방성불도 운하금설
唯除三毒 則名解脫
유제삼독 즉명해탈
答曰佛所說 言無虛妄也
답왈불소설 무언허망야
阿僧祇者 卽三毒心也
아승지자 즉삼독심야
胡名阿僧祇 漢言不可數
호명아승지 한언불가수
此心中有恒沙惡念
차심중유항사악념
一念中皆有一劫
일념중개유일겁
恒沙者不可數也 以三毒惡念
항사자불가수야 이삼독악념
如恒沙故 言不可數也
여항사고 언불가수야
眞如之性 旣被三毒之所覆
진여지성 기피삼독지소부
若不超彼恒河沙惡之念
약불초피항하사악지염
云何名解脫
운하명해탈

유자심생 단능섭심 이제사악
三界六趣 輪廻之苦 自然消滅
삼계육취 윤회지고 자연소멸
能盡諸苦則名解脫
능진제고즉명해탈

물었다. "여섯 갈래로 나눠지는 가벼움과 무거움은 무엇입니까."

대답했다. "만약 어떤 중생이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그릇된 마음으로 선(善)을 닦으면 삼계를 면하지 못해서 세 가지 가벼운 곳에 태어난다. 세 가지 가벼움이란 무엇인가. 말하자면 그릇되게 십선(十善)을 닦으면서 함부로 쾌락을 누린다면 탐욕의 세계를 면치 못해 하늘(天趣)에 태어나고, 그릇된 마음으로 오계(五戒)를 지켜 함부로 사랑과 미움을 일으키면 성내는 세계를 면치 못해 인간에 태어나고, 그릇되게 유위법(有爲法)에 집착하여 삿된 법을 믿어 복을 구하면 어리석은 세계를 면치 못해 아수라에 태어난다. 이런 세 종류를 세 갈래의 가벼운 길이라 한다. 무엇이 세 가지 무거운 길인가. 말하자면 삼독의 마음을 마음대로 부려 악업을 짓는 것인데, 만약 탐욕의 악업이 무거운 자는 아귀에 떨어지고, 성냄의 악업이 무거운 자는 지옥에 떨어지며, 다시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나는 한없는 아승지겁을 부지런히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었다' 하셨는데 스님께서는 어째서 오직 삼독만을 제거하면 해탈한다 하십니까."

대답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진실이다. 아승지란 곧 삼독심이다. 인도어인 아승지는 한문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다. 마음에는 갠지스강 가의 모래 만큼이나 악한 생각이 있고, 그 낱낱의 생각 중에 다 일겁씩 있다. 강 가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삼독의 악한 생각도 모래와 같으므로 셀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진여의 성품이 삼독에 덮였으니 모래 수만큼이나 많은 악한 생각에서 초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탈이라 하겠는가.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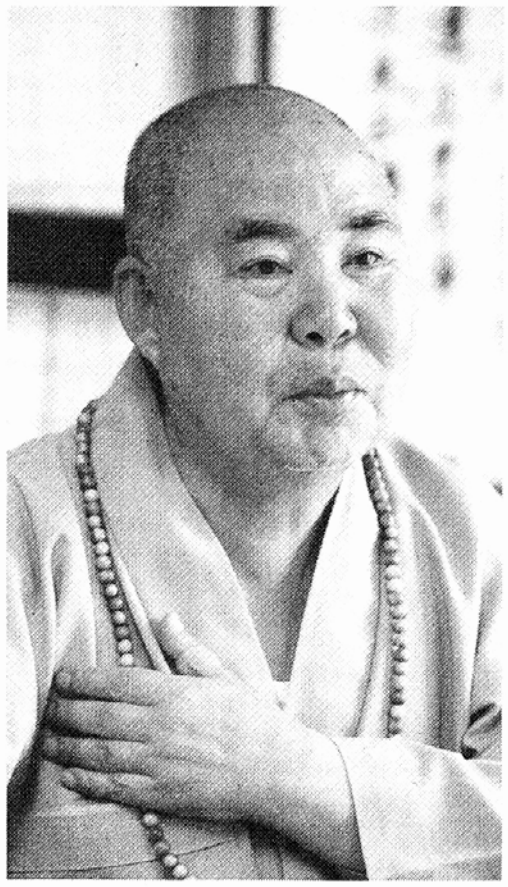
일선스님

문산 평화통일사 주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남북정상회담. 이를 계기로 한반도 역사가 새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50년간이나 적대관계에 있었던 남과 북이 마치 오랜 도반을 만난 것처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5개항의 공동선언문 합의까지 이끌어 냈다. 더구나 통일문제를 우리끼리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데는 긍지마저 느끼게 한다.

두 정상이 큰 일을 해냈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한민족의 진정한 화합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몫이 크다. 지리적 분단 이상으로 서로간의 골이 깊은 증오와 불신을 화해로 승화시키는 일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굳건한 디딤돌을 놓는 일일 것이다. 남북의 화해 · 협력 · 교류를 위한 불교계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냉전이 극심했던 지난 73년부터 오직 '조국평화통일'을 화두로 염불과 사경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이 있다.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진각에서 독경과 〈법화경〉 사경, 그리고 군포교만을 고집하고 계신 일선 스님을 만나 평화통일 기도를 발원한 이유와 '임진각 통일기도 27년', 그리고 통일을 위한 불교계의 역할 등에 대해 들었다.

"적대감 녹여야 통일 빨라져요"



· 1932년 경북 달성 生
· 1940년 고암스님 은사로 출가
· 해인사 용탑선원 등서 정진
· 73년부터 현재까지 임진각에서 평화통일 기도정진
· 이차돈 선양회장
· 서부전선군불자 지도법사
· 파주시 불교연합회 고문
· 문산 평화통일사 주지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입니다. 이를 오랜 원력으로 삼아 정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누구에게나 수행의 좋은 기회가 주어지게 마련입니다. 스승과의 만남과 시절 인연, 그리고 자신의 일상생활에 따라 선승이나 학승, 포교사로서 각자 정진하는 길이 달라집니다. 이런 점에는 나는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으로 이어진 셈이지요. 6·25 당시 대구에서 경찰생활을 하면서 공비토벌에 참여했던 것, 그리고 고암(前 조계종 종정) 스님을 시봉한 것이 내 수행의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요.

전쟁을 겪으면서 처절한 민족의 아픔을 경험했고, 고암 스님을 모시면서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스님들은 '주지 타령'만 하고 있을 뿐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는 누구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어요. 그때 이것이 바로 내가 가야할 수행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어 부처의 몸으로 거듭나지 못할지언정 전쟁으로 인해 평생 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자는 원을 세웠습니다. 그들과 고통을 나눌 때 희망이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지요. 그 길(73년 5월5일)로 걸망하나 메고 서부전선 임진각을 찾아갔습니다.

임진각 통일기도 27년

—다른 이들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길을 나서기까지는 나름대로의 수행철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나름대로의 생활철학을 하나씩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바쁘고 복잡한 현대인에게 건전한 생활철학은 자신을 잃지 않고 살 필 수 있는 귀중한 의지처가 됩니다. 불교는 훌륭한 생활철학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데, 그것은 다름 아닌 부처님의 실천적 교설이지요. 내가 수행의 철학으로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법화경〉의 보살정신입니다. 인간계의 고난을 건전하게 극복하는 사람이야말로 부처님의 본래 제자로서 불법을 펴나갈 사명을 수행하는 보살임을 강조하는 이 경의 사상은 나의 원력과 꼭 맞았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수행철학으로, 평화통일기도의 소의경전으로 삼았어요. 〈법화경〉은 어린애가 장난으로 불상을 그려도 부처가 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런 말씀입니까. 불안했던 마음 속에 다시 믿음의 환희가 용솟음치지 않습니까.

—임진각에서의 기도에는 관람객들까지 동참시키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요.

▲초창기에는 조계사에서 새벽예불을 마치고 임진각에 도착해 북녘을 향해 불단을 설치하고 목탁을 치며 참회와 평화통일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한 자를 쓰는 〈법화경〉 사경을 권했지요. 그리고 다시 조계사로 돌아오는 것이 하루 일과였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는 꼭 1일1식(오후불식)을 했어요. 15년 동안 이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임진각 근처에 초가집을 빌려 기도뿐만 아니라 전몰장병들을 위한 천도재, 그리고 군불자들을 위한 포교활동도 했습니다.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임진각에 매일 나가지는 못하고 평화통일사에서 임진각까지의 새벽 도량석과 〈법화경〉 사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경에 동참한 사람이 70만 명이 넘어요. 〈법화경〉이 모두 69.384자인 데 열·번 정도 한 셈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수행이 되냐고 하는데, 나는 그 어떤 수행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이기 때문에 방편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무엇보다 일념이 돼야 하고 간절한 마음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행할 적에 간절한 마음이 지속된다면 그 어떤 것도 성취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과 옛 조사의 어록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옳게 믿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자기가 직접 수행을 쌓아서 가장 수승한 단계인 견성의 경지에 가야 궁극적인 자기의 살림살이가 되는 법입니다. 선방에 앉아만 있다고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무엇합니까.

망향의 한 서로 달래

—임진각에는 불자만이 아닌 다른 종교의 신자들도 많이 찾을텐데, 기도의 어려움도 크셨겠습니다. 통일에 임하는 국민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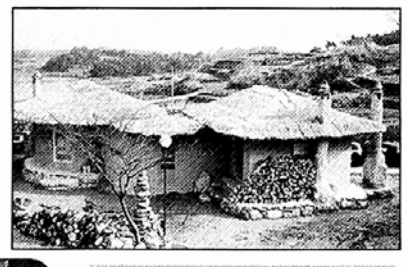
▲어찌 수행에 장애가 없기를 바라겠습니까. 처음에는 '미친 중'이라는 말 많이 들었지요. 임진각 앞마당에 불단을 차려놓고 하루종일 목탁치고 염불하니 타종교인들에게 그런 소리 듣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처음 터득한 것이 이 기도를 원만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귀와 얼굴을 두껍게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사주봐 달라'는 사람들까지 찾아오는 데 이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망향의 한을 가슴 속에 담고 찾아온 실향민들이 큰 힘을 주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기도를 하고, 망향의 한도 나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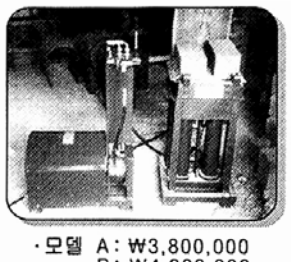
울분과 분노로 가득찬 이들을 위해 기도하려면 무엇보다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심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평화통일 기도는 그 어떤 대가를 바래서도, 한쪽에

황토 흙벽돌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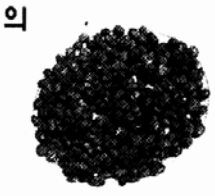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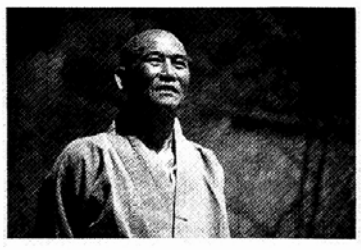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약사여래원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 檀단 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 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3437-8282 ◑

봉인사 위빠사나, 아봐타 수련일정

"그대는 이 순간에도 깨어 있는가"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에게
위빠사나 수행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고요히 관찰 할수 있는 시간에
많이 동참하시어 삶을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시기 바랍니다.

◈ 7월 · 8월 여름수련회◈

수련내용	날짜	기간	회비(원)	지도스님
위빠사나	7월 6일- 9일	3박4일	60,000	지산스님
위빠사나	7월 9일- 15일	6박7일	100,000	붓다랏기다 스님
위빠사나	7월16일- 22일	6박7일	100,000	붓다랏기다 스님
아봐타	7월23일- 30일	7박8일	1,700,000	봉인사
위빠사나	8월 3일- 6일	3박4일	60,000	지산스님
어린이수련원	8월 8일- 10일	2박3일	25,000	해인심
아봐타	8월12일- 19일	7박8일	1,700,000	봉인사
위빠사나	8월20일- 26일	6박7일	100,000	미정
위빠사나	8월17일- 9월2일	6박7일	100,000	붓다랏기다 스님

봉인사 한길정진원
▶ 전화 : 0346)574-5585 ▶전송 : 0346)574-0808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2리 304번지